

현대중국어 ‘快’·‘快要’의 의미·품사·어법단위 분석 — 詞典의 해석을 중심으로

안기섭* · 정성임**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현대중국어 ‘快’와 ‘快要’의 사전상의 해석과 문제점
 - 1) ‘快’의 의미
 - 2) ‘快要’의 의미와 품사 및 어법단위
3. 나오는 말

【초록】

『現代漢語詞典』의 해석을 중심으로 ‘快’와 ‘快要’의 의미, 품사, 어법단위를 논의한 결과 ‘快’는 어떠한 문맥에 쓰일지라도 ‘움직이는 동작이나 일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빠르다’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관통되어 주로 술어, 보어, 부사어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명사로서 ‘성씨’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대에는 ‘捕快’와 ‘馬快’와 같이 명사로서 ‘옛날에 체포하는 부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대중국어의 단음절어 ‘快[기쁘다]’의 형태가 현대중국어에서는 비자립형태소로 쓰임도 확인하였다. 『現代漢語詞典』에 부사로 등재된 ‘快要’는 실제 언어 환경에서는 ‘속도가 빠르거나 길을 걷거나 시간이 짧음’을 의미하는 형용사 ‘快[빠르다]’와 ‘~하기를 원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要’가 연결되어 ‘빨리(곧) ~하려고 하다’의 문맥 의미를 형성한다. ‘快’는 동사나 형용사 술어 이외에도 수량사 술어 앞에도 쓰여 문맥상 ‘빨리(곧)~하려고 하다’라는 문의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현대중국어의 실제 언어 환경에서는 수량사 앞에는 ‘快’, 동사술어나 형용사술어 앞에는 ‘快要’가 주로 쓰임도 확인하였다. ‘快要’는 ‘快[빠르다]’와 ‘要[~하기를 원하다]’ 두 단어의 연결으로 쓰인다고 여긴다.

【키워드】 ‘快’[kuài], ‘快要’[kuàiyào], 現代漢語詞典, 의미항목, 품사, 어법단위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angiseb@hanmail.net)

**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tokee18@hanmail.net)

1. 들어가는 말

단음절어 ‘快’는 『說文解字』에서는 ‘기쁘다’(快, 喜也.)로 풀이되어 있으나 『漢語大詞典』(俗謂急速曰快.)이나 『現代漢語詞典』(速度高; 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跟“慢”相對)에서는 ‘빠르다’도 의미항에 등재되어 있다. ‘기쁘다’(快, 喜也.)의 의미 덩어리를 갖는 ‘快’ 자형(字形) 곧 그 형태가 현대중국어의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이를 테면 ‘快樂’¹⁾·‘痛快’²⁾·‘愉快’³⁾ 등과 같이 한 단어를 구성하여 문장에 쓰이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어 학습자는 보통 ‘快[빠르다]’ 형태는 형용사로서 ‘速度高; 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속도가 높음; 길을 걷거나 일을 할 때 소비되는 시간이 짧음.]을 의미하거나 부사로서 ‘赶快[빨리]’, 또는 ‘快要; 将要[곧~하려고 하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한다. 교수-학습에서 ‘快[빠르다]’는 하나의 동일한 형태인데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사로 쓰인다고 하는가? 나아가 동일한 부사임에도 ‘快[빨리]’나 ‘快[곧 ~하려고 하다]’ 등의 각각 다른 형태(의미)로 가르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현행 어법서에 의하면 ‘快[빠르다]’의 형태를 형용사와 부사로 가르는 어법기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보통 부사 ‘很’의 수식을 받고 단독으로 술어 성분으로 쓰이면 형용사로 분류하고,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앞에 놓여 이들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면 부사로 분류한다. ‘快’라는 하나의 형태가 술어와 부사어에 쓰였을 뿐인데 문장성분에 따라 술어가 되는 ‘快[빠르다]’는 형용사에, 부사어가 되는 ‘快[빨리]’는 부사로 여겨왔다. 나아가 동일한 형태임에도 ‘快[곧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문중에서의 위치 곧 그 기능(문장성분)의 다름에 착안하여 사성[詞性]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어는 문장성분이 될 수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실사와 허사를 가를 수는 있어도, 어떠한 문장성분이 되느냐가 어휘 자체의 사성[詞性]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주어 자리에 명사나 대사만 놓이는 것이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도 놓일 수 있으며, 부사뿐만 아니라 동사·형용사·명사·대사도 부사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 관한 한 문장성분이라는 통사적 요소는 품사를 구별하는 명백한 이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성분의 차이를 품사의 차이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사전의 의미항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 풀이되어 있는 의미항에는 해당 단어의 다수 의미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어는 품사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의 차이나 변화가 없으며, 통사상의 명백한 특징과 이론적 근거는 아직 없다. 품사를 나누었을 때 문장성분, 즉 기능과 엄격한 대응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능에 의해 품사를 분별하게 되면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여러 품사를 지녔다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어 품사 구분의 주

1) 中國社會科學 語言研究所 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北京:商務印書館, 2017, p.757.

2) 『現代漢語詞典』, 앞의 책, p.1318.

3) 『現代漢語詞典』, 앞의 책, p.1598.

4) 안기섭, 『新體系漢文法大要 先秦·兩漢시기』, 보고사, 2012, pp.35-61, pp.199-202.

된 방편은 의미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 의미에 대한 직관적·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快’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술어로 쓰였느냐 부사어로 쓰였느냐에 따라 형용사와 부사라는 각기 다른 사성[詞性]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다. 다른 문맥에 쓰였다고 해서 해당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여기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어법 사실로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언중들이 과연 실제 언어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전에 풀이된 다수의 의미 항목을 두뇌에 저장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사전의 많은 의미 항목은 언어 사용상의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다. 사전의 해석이 실제 언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교수-학습에 어려움이 따른다.

‘快’와 ‘要’는 모든 어법서에서 중요한 어법 성분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快’와 ‘快+要’의 결합인 ‘快要’를 대상으로 의미·품사·어법단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北京大學 코퍼스자료(CCL)의 검색에 의하면, ‘快’의 출현 수는 총 274,671번이고, ‘快要’의 출현 수는 총 3,132번이다. ‘快’의 총 출현 빈도수에는 ‘快[빠르다]’ 형태만 검색된 것이 아니고 『現代漢語詞典』의 의미항이 모두 포함된 빈도수이다. 이는 北京大學 코퍼스자료(CCL)의 검색이 자형(字形)으로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빈도수 중 본 연구에 필요한 예문을 별도로 발췌하여 그 출현 빈도수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글 또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快’와 ‘快要’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 기존의 방편에 의한 문장의 구조 분석은 아무런 결과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코퍼스 자료에 의한 통계 데이터 자체가 무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전 해석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快’와 ‘快要’의 의미, 품사, 어법단위에 대해 논한다.⁵⁾

보통 사전이라 함은 ‘어휘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표기법, 발음, 어원, 의미, 용법 따위를 설명한 책’을 말한다. 사회구성원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항목을 다루지 형태소를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은 형태소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의 범례 중 ‘품사표기(詞類標注)’에, “현대중국어에서 단음절의 어휘항목 가운데 단어는 품사를 표기하나, 단음절의 비자립형태소나 글자는 품사를 표기하지 않는다.”⁶⁾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비자립형태소나 글자는 단어가 아니므로 품사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품사를 표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서구의 사전과 달리 중국의 『現代漢語詞典』에서는 단어 이외에 형태소도 의미항의 하나로 배열한다.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까지 배속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5) 이 글은 사전 해석상의 문제점을 논하여 단어의 의미, 품사, 그리고 어법단위를 논한 선행 연구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다. 선행 연구로는 ‘就’·‘就是’(안기섭·정성임·허봉격, 『就·就是의 詞典 해석상의 문제에 대하여 — 의미항·품사·어법단위를 중심으로』, 『중국어연구』, 제79집)와 ‘還’·‘還是’(안기섭·정성임·허봉격, 『還·還是의 의미·품사·어법단위에 대하여 — 詞典의 해석을 중심으로』, 『중국어인문과학』, 제64집)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최근의 논문은 정성임의 「현대중국어 ‘跟’·‘跟着’의 詞典 해석상의 문제 고찰 — 의미항·품사·어법단위를 중심으로」(『중국어인문과학』, 제68집)가 있다.

6) 『現代漢語詞典』, 앞의 책, p.5. 單字條目在現代漢語中成詞的標注詞類, 不成詞的語素和非語素字不做標注.

립형태소로 표기하고 그 의미 덩어리를 표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快’와 ‘快要’에 한정하여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의 해석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룸과 동시에 사전상의 다수의 의미항이 문맥에 의거한 과도한 분류임을 논의하고, 나아가 품사와 어법단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사전의 해석은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漢語大詞典』과 『中韓辭典』 등의 사전류의 해석도 함께 다룬다. 논리 전개에 필요한 인용문은 사전이나 어법서 그리고 북경대학의 언어자료(CCL)를 주로 인용한다.

2. 현대중국어 ‘快’와 ‘快要’의 사전상의 해석과 문제점

1) ‘快’의 의미

『現代漢語詞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⁷⁾

① 【형용사】

① 速度快；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跟“慢”相對)。[속도가 높다. 길을 걸거나 일을 할 때 소비되는 시간이 짧다.(‘慢’과 상대됨.)]

- ① 快車。(급행열차[←차를 빠르게 하다 / 빠른 차])
- ② 快步。(속보[←걸음을 빨리하다 / 빠른 걸음])
- ③ 又快又好。(빠르고 좋다 / 빠르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 ④ 他進步很快。(그는 진보가 매우 빠르다.)

④ 靈敏。[반응이 빠르다.]

- ⑤ 腦子快。(머리가 빠르다)
- ⑥ 眼疾手快。(눈과 손이 빠르다)

⑤ (刀、剪、斧子等)鋒利(跟鈍相對)。[(칼, 가위, 도끼 등) 날카롭다(‘鈍’과 상대됨.)]

- ⑦ 菜刀不快了，你去磨一磨。(칼이 빠르지 않으니 너는 가서 좀 갈아라.)

② 【부사】

② 赶快。[빨리]

- ⑧ 快來幫忙。(빨리 와서 돕다.)
- ⑨ 快送醫院搶救。(병원으로 빨리 보내 급히 구하다.)

③ 快要；將要。[곧~하려고 하다]

- ⑩ 你再等一會兒，他快回來了。(조금 더 기다리면 그는 빨리 돌아올 것이다.)

7) 『現代漢語詞典』, 앞의 책, p.759.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전의 해석에 따라 의미항을 나열하지 않고 품사별로 한데 묶어 나열한다.

⑪ 他從事教育工作快四十年了。(그가 교육에 종사한 지 빠르게는 40년이 되어 간다.)

③ 【명사】

⑨ (Kuài) ⑮姓。

④ 【형태소】

⑥ 爽快；痛快；直截了當：⑫～人～語。

⑦ 愉快；高興；舒服：⑬～感 | ⑭拍手稱～ | ⑮大～人心。

⑧ 舊時指專管緝捕的差役：⑯捕～ | ⑰馬～。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의 풀이에는, ‘快’가 ①형용사(①·④·⑤), ②부사(②·③), ③명사(⑨) 등의 단어로 쓰인 용례와 더불어 ④형태소(⑥·⑦·⑧)로 쓰인 용례도 함께 있다.

먼저 형용사의 풀이부터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형용사에는 3개의 의미항이 서술되어 있다. 예문①~④는 ①“速度高；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跟“慢”相對)。”[속도가 높다. 길을 걷거나 일을 할 때 소비되는 시간이 짧다.(‘慢’과 상대됨.)]”를 의미한다. 예문①에 쓰인 ‘快’가 ‘速度高[속도가 빠르다]’의 의미로 쓰이고는 있으나, 문장 중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니고 ‘快車’(급행열차)의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로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례로 보이지 않는다. 예문②의 ‘快步’는 ‘빠른 걸음’일 경우에는 뒤의 ‘步’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나, 빨리 걷는 운동 경기인 ‘속보’를 의미할 경우에는 형태소로 쓰이므로 적절한 용례로 보기 어렵다. 예문③ “又快又好.”, 예문④ “他進步很快。”의 ‘快’는 문장에서 술어로 쓰여 “速度高；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跟“慢”相對)。”[속도가 높다. 길을 걷거나 일을 할 때 소비되는 시간이 짧다.(‘慢’과 상대됨.)]”의 의미항을 나타낸다. ‘快’는 ‘속도가 빠르다’는 언어 환경을 구성하는 단어로 여겨진다. 그래서 예문⑤ “腦子快。(머리가 빠르다)”·예문⑥ “眼疾手快。(눈과 손이 빠르다)”의 용례에서 보이듯이 문맥상 ④“靈敏。[반응이 빠르다]”의 언어 환경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⑦ “菜刀不快了，你去磨一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맥상 ⑤“(刀、剪、斧子等)鋒利(跟鈍相對)。”[칼, 가위, 도끼 등] 날카롭다(‘鈍’과 상대.)]의 언어환경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문⑦의 경우도 예문⑤·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칼의 속도가 빠르지 않는 정황’이라고 읽혀진다. 즉, ‘快’는 ‘속도가 빠르다’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문③은 주어가 생략되어 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분간할 수 없지만, 예문④는 ‘進步’[진보, 진전], 예문⑤는 ‘腦子’[뇌, 머리], 예문⑥은 ‘手’[손], 예문⑦은 ‘菜刀’[부엌칼]가 주체이다.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술어인 ‘快’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문⑤와 예문⑥의 ‘快’를 ‘빠르다’라고 풀이해도 문의는 달라지지 않는다. 예문⑤의 ‘快’는 ‘腦子’, 예문⑥의 ‘快’는 ‘眼’·‘手’의 ‘동작(움직임)’이 빠름을 묘사한다. 문맥 즉 전체 文意를 취하여 ‘快’를 ‘靈敏’[반응이 빠르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예문⑥의 ‘眼疾手快’는 주술구조인 ‘眼疾’와 ‘手快’가 연합관계로 구성된 成語로서 ‘手疾眼快’라고도 한다. 예문⑦의 ‘快’ 또한 ‘빠르다’이다. 詞典의 해석에 의하면 ‘快’는 ‘鋒利’[날카롭다]와 동의어이고 ‘鈍’[무디다]과는 반의어이다. 현대중국어에서 ‘快’의 의미항이 새로이 생

겨난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날카롭다’에 해당하는 단어 ‘尖’[jiān]이 있음에도 굳이 ‘快’를 써서 표현한 데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칼이나 가위 또는 도끼 등의 연장 따위의 끝이 날카롭다’를 나타내고자 한 바가 아니라 ‘칼이나 가위 또는 도끼 등의 연장(도구) 따위가 속도감 있게 빠르다(→빨리 움직이다)’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는 현대중국어 ‘快’는 ‘움직이는 동작의 속도가 빠르거나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의 의미향을 갖는다고 여긴다.

부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사로 배속된 의미향은 ②“赶快[빨리]”와 ③“快要; 将要[곧~하려고 하다]” 둘로 나누고 있으나 이것 역시 형용사로 배속된 ‘快’와 같이 ‘속도가 빠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문⑧의 “快来帮忙。(빨리 와 돕다.)”이나 예문⑨의 “快送医院抢救。(병원으로 빨리 보내 급히 구하다.)” 중의 ‘快’는 동사술어 ‘來’와 ‘送’ 앞에 놓여 ‘이들 동사술어의 동작이 시간적으로 빨리 이뤄짐’을 의미한다. 예문⑩의 ‘快’는 ‘回來’(돌아오다)의 앞, 예문⑪의 ‘快’는 ‘四十年’(사십년)의 앞에 각각 쓰였다. 문맥상 예문⑩은 ‘他快回来了’의 앞절에 ‘你再等一會兒’(조금 더 기다려라)가 쓰인 것으로 보아 ‘他快回来了’는 ‘그는 빨리 돌아올 것이다.’를 의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문⑪ 또한 문맥적으로 ‘他從事教育工作’(그가 교육 업무에 종사한 지)가 술부 ‘快四十年了’ 앞에 쓰여 일정 기간을 한정하므로 ‘快四十年了’는 ‘빠르게 40년이 될 것이다’(→곧 40년이 된다.) ‘快’는 일의 진행 상황이나 동작이 시간적으로 빠름을 의미한다. 예문⑩·⑪의 경우는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에 서술된 부사 ‘快要’와 같은 용례이다. ‘快’와 ‘快要’가 같은 언어 환경을 구성한다.

어떤 경우에는 ‘快’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快要’를 쓰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 ‘快要’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예문⑩·⑪의 쓰임과 같이 ‘快’는 문맥상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형용사 ‘快’가 갖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의미향을 고려한다면, 예문⑩·⑪에서 부사어로 쓰인 ‘快’ 또한 예문③·④, 예문⑤·⑥, 예문⑦의 경우와 같이 형용사 ‘快’가 문장을 구성하는 언어 환경에 따라 술어로 쓰이든 부사어로 쓰이든 ‘快’가 의미하는 바는 ‘속도나 시간적으로 빠르다’이다. 그런데 단어의 성질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사론을 적용시켜 객관적인 근거로 삼고자 하나 중국어에서는 이마저도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중간에 조사 ‘的’를 넣을 수가 있다. ‘快的車’ 혹은 ‘快的步’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新老師’나 ‘小朋友’와 같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도 중간에 조사 ‘的’를 넣지 않을 수도 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중간에 조사 ‘的’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吃的東西’와 같이 동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이 중국어이다. 이 경우만 봐도 단어와 단어 간의 결합 관계 등에 의한 통사마저도 중국어의 어법을 가르는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예문⑧~⑪의 ‘快’ 또한 부사어를 나타내는 ‘地’가 모두 생략되어 쓰였다. 관형어를 나타내는 ‘的’나 부사어를 나타내는 ‘地’가 반드시 쓰여야 통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즉 화자가 강조하고자 한 경우에 한해 ‘的’와 ‘地’가 쓰이므로 통사 또한 중국어의 어법을 가르는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예문 ③~⑦에 쓰인 ‘快’와 예문 ⑧~⑪에 쓰인 ‘快’는 무엇이 다른가? 모두 ‘움직이는 동작

의 속도가 빠르거나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를 의미한다. 단지 문장성분이 다를 뿐이다. 예문 ③~⑦의 ‘快’는 술어, 예문 ⑧~⑪의 ‘快’는 부사어로 쓰인 예이다. 통사적인 결합에 의해서도 예문 ③~⑦ ‘快’나 예문 ⑧~⑪의 ‘快’를 동일한 단어의 성질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에서 형태소의 용례로 분류한 ⑥항의 ‘爽快[유쾌하다], 痛快[통쾌하다], 直截了當[시원스럽다]’의 의미로 쓰인 ⑫‘快人快語’(시원한 사람은 말도 시원시원하게 한다.), ⑦항의 ‘愉快[유쾌하다], 高興[기쁘다], 舒服[편안하다]’의 의미로 쓰인 ⑬‘快感’(쾌감, 유쾌한 기분, 상쾌한 느낌), ⑭‘拍手稱快’(박수치며 쾌재를 부른다), ⑮‘大快人心’(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후련하게] 하다, 속이 시원하게 하다. / ‘人心大快’) 등은 고대중국어에서는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쓰인 예들이나 현대중국어에서는 단어를 구성하는 비자립형태소로 쓰였다. 북경대(CCL)의 코퍼스자료를 검색해 봐도 ‘快’ 단음절 자체가 단독으로 쓰여 ‘기쁘다(즐겁다)’의 의미향을 갖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⑧항의 ‘舊時指專管緝捕的差役[옛날에 체포하는 부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의 의미로 쓰인 ⑯‘捕快’와 ⑰‘馬快’은 명사로서 옛날에 전문적으로 체포를 관장하는 노역(노역/사역/부역)을 의미한다. ‘捕快’와 ‘馬快’는 ‘명청(明清)시대에, 주현(州縣) 등의 죄인을 잡는 하급 관리. 포리(捕吏)’의 직책에 해당한다. ⑧항의 ‘舊時指專管緝捕的差役[옛날에 체포하는 부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의 의미로 쓰인 ⑯‘捕快’와 ⑰‘馬快’는 명사의 예로 귀속함이 옳다.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의 범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단음절의 어휘 항목 중 문언문은 수사·양사·대사·부사·개사·접속사·조사·감탄사·의성사에 한해 품사를 표기하고, 명사·동사·형용사의 경우에는 품사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다.⁸⁾ 예문 ⑯‘捕快’와 ⑰‘馬快’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끝으로 ‘快’는 성씨의 하나로도 쓰인다.(예문 ⑱)

『說文解字注』에 의하면 “‘快’는 ‘기쁘다’이다. 인신된 의미는 ‘빠르다’이다. 속자는 ‘駢’이고 ‘心’을 따르고 ‘夊’성부이다.(‘夊’[快 : kuài], 喜也. 引申之義爲疾速. 俗字作駢. 从心. 夊聲. 苦夊切. 十五部.)”라고 되어 있다. 『故訓匯纂』(2538쪽)에 의하면, ‘駢[kuài]는 苦夊切, 去夊溪(『廣韻』)로 ‘快’와 같다. 고대중국어에서 ‘快’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⁹⁾

① 【형용사】

① 高興, 痛快. [기쁘다, 통쾌하다]

⑱ 文信侯去而不快. (『戰國策』·「秦策」)

(문신후는 [장당의 집을] 나왔지만 기쁘지 않았다.)

⑳ 心不快. (『史記』·「魏公子列傳」)

(마음이 기쁘지 않다.)

㉑ 動作迅速, 與“慢”相對. [동작이 신속하고 ‘慢’과 상대어이다]

8) 『現代漢語詞典』, 앞의 책, p.5. 單字條目中的文言文, 只給數詞、量詞、代詞、副詞、介詞、連詞、助詞、歎詞、擬聲詞標注, 名詞、動詞、形容詞不做標注.

9) 羅竹風 主編의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pp.435-436)과 宗福邦, 陳世鐸, 蕭海波 主編의 『故訓匯纂』(商務印書館, 2003, p.777) 참조.

- ②① 俗谓急速曰快. (『正字通』)
 (‘急速’을 속되게 일러 ‘快’라고 한다.)
 ②② 此马虽快, 然力薄不堪苦行. (『晋书』·「王湛传」)
 (이 말이 비록 빠르지만 힘은 약하여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
 ②③ 彭城王有快牛, 至爱惜之. (『世说新语』·「汰侈」)
 (팽성왕은 빠른 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낀다.)
 ②④ 健儿须快马, 快马须健儿. (古乐府『折杨柳歌辞』)
 (건강한 아이는 빠른 말을 필요로 하고, 빠른 말은 건강한 아이를 필요로 한다.)

③ 锋利. [날카롭다]

- ②⑤ 快刀断其头. (李商隐『行次西郊作』)
 (빠른[날카로운] 칼이 그 머리를 끊었다.)

④ 直爽, 爽快. [시원시원하다]

- ②⑥ 人见邻里有佳快者, 使子弟慕而学之. (『颜氏家训』·「勉学」)
 (사람들이 이웃에 아름답고 [빠른→]시원시원한 이가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그를 흠모하고 배우게 하였다.)

② 【부사】

- ②⑦ <副> 将要. [곧 ~할 것이다(장차~하려고 한다)]
 ②⑦ 我儿子已经快七岁了.
 (내 아이는 이미 빠르게[곧] 일곱 살이 될 것이다.[된다])
 ②⑧ 天快亮了.
 (날이 빠르게[곧] 밝아질 것이다.)
 ②⑨ 那只鸡快死了.
 (그 닭은 빠르게[[곧] 죽을 것이다.[죽게 된다])

『現代漢語詞典』의 의미향은 『漢語大詞典』을 근간으로 한다. 고대중국어는 단어의 기능보다는 글자가 갖는 의미에 주안점을 두었다. 훈고학의 영향 아래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인가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 단어의 품사를 부여해야 하나 문장성분 이외의 별다른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 ‘快’의 고유 의미보다 파생된 의미가 구어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데는 백화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백화운동 이후 급속도로 구어체를 선호하는 문화적 영향이 현대중국어에도 반영된 예라 할 수 있다. ‘迅速[빠르다]’하다는 문어체가 있음에도 언중들이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구어체의 상황에서는 ‘快[빠르다]’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구어체의 간결성 때문일 것이다.

고대중국어에서 ‘快[기쁘다, 기쁜, 기쁨]’의 형태는 문중에 단독으로 쓰여 문장성분으로서의 어법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현대중국어에서 ‘快[기쁘다]’의 형태는 그와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형태와 결합하여 ‘爽快, 愉快, 明快, 痛快, 快感, 快樂’ 등의 단어를 형성할 뿐 문중에서 단독으로 쓰여 문장성분의 지위를 갖거나 하는 등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中韓辭典』의 ‘快’의 해석은 어떠한가? 아래의 풀이를 보자.¹⁰⁾

- ①快 (속도가) 빠르다.
- ②快 속도.
- ③快 빨리, 어서, 얼른.
- ④快 곧[머지 않아] (……하다.) [일반적으로 구말(句末)에 ‘了’가 오며
- ⑤快 영민하다, 민감하다, 예민하다, 약삭빠르다, 영리하다.
- ⑥快 (연장 따위가) 예리하다, 날카롭다 잘 듣다.
- ⑦快 (비누 따위가) 잘 일다.
- ⑧快 (성격 따위가) 시원스럽다, 솔직하다.
- ⑨快 유쾌하다, 즐겁다, 편안하다.
- ⑩快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中韓辭典』의 해석에만 의하면 ‘快’는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등 네 개의 품사를 겸할 뿐 아니라 같은 품사에서 의미도 다양하다. ①, ③·④·⑤·⑥항은 『現代漢語詞典』의 풀이와 같으므로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中韓辭典』에서는 ②항의 명사의 쓰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중국어는 형태변화도 형태표지도 거의 없는 언어로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변별하는 경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문맥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명사, 동사, 형용사로 분류하여 왔다. 아래의 예를 보자.

- ⑩ 這種汽車在柏油路上能跑多快?
- (이런 자동차는 포장도로에서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快[빠르다]’의 형태가 예문⑩의 경우와 같이 문장에서 술어에 위치하고 형용사나 부사의 수식을 받고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형용사로 분류하여 왔다. ‘快[빠르다]’의 형태 앞에 놓인 ‘多[많다]’의 형태가 형용사 ‘大, 高, 长[cháng], 远, 粗, 宽, 厚’ 따위 앞에 놓여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낼 경우에는 문맥상 ‘多[얼마나]’의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多[많다]’와 ‘多[얼마나]’의 형태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다음을 기약한다. ‘快[빠르다]’의 형태와 같이 똑같은 기능을 갖는 어휘는 많다. 이를 테면 ‘走[걷다]’의 형태 역시 형용사나 부사의 수식을 받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똑같은 기능을 지님에도 ‘快[빠르다]’와 ‘走[걷다]’ 두 자형(字形)이 갖는 의미에 의해 ‘快[빠르다]’는 형용사에 ‘走[걷다]’는 동사에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⑦항의 ‘(비누 따위가) 잘 일다.’와 ⑨항의 ‘편안하다’ 모두 ①항의 ‘快[빠르다]’의 의미이다.

- ⑪ 这块胰子不快。
- (이 비누는 잘 일지 않는다. ←이 비누는 빨리 일지 않는다.)
- ⑫ 身體不快。
- (몸이 불편하다. ←몸이 빠르지 않다.)

10)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中韓辭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2, pp.1286-1287.

⑧항의 ‘(성격 따위가) 시원스럽다, 솔직하다.’와 ⑩항의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의 비자립형태소로 쓰인 예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통 사전이라 함은 ‘어휘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실고 그 표기법, 발음, 어원, 의미, 용법 따위를 설명한 책’이다. 사회구성원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항목을 다루지 형태소를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행 중국의 사전류들이 비자립형태소까지 언급한 데는 고대중국어에서는 자립형태소로 쓰인 단어가 현대중국어에서는 비자립형태소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快餐’은 ‘快[빠르다]’의 자립형태소가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또 다른 형태(단어)를 형성한 예이지만 ‘快感·快樂’이나 ‘痛快·愉快’ 등에 쓰인 ‘快[기쁘다]’의 형태는 비자립형태소로서 현대중국어에서 다른 형태의 단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만 쓰인다. 즉, 고대중국어에서 ‘快[빠르다]’와 ‘快[기쁘다]’ 두 형태는 각각 다른 두 개의 단어이나 현대중국어에서 ‘快[빠르다]’의 형태만 단어로 쓰이고 ‘快[기쁘다]’의 형태는 비자립형태소로 쓰인다. 비록 비자립형태소이나 고대에서 사용된 의미 덩어리로 지금까지 쓰이므로 어원적 측면에서라도 하나의 의미항에 배속해야 한다. 단 ‘비자립형태소’로 표기한 후 그 의미 덩어리를 풀이하는 것을 권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快’의 형태가 갖는 품사·의미항·어법단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형용사이고, ‘움직이는 동작이나 일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빠르다’를 의미한다. 주로 술어, 부사어, 보어 등에 쓰인다.

술 어 : 他進步很快。菜刀不快了, 你去磨一磨。

부사어 : 快來幫忙。| 快送醫院搶救。

他快回來了。| 他從事教育工作快四十年了。

보 어 : 他來得很快。

② (Kuài)명 姓.

③ 명사이고 ‘옛날에 체포하는 부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를 의미한다. ‘捕快’와 ‘馬快’.

④ 비자립형태소 ; 기쁘다.

술어로 쓰인 ‘快’(他進步很快。)와 부사어로 쓰인 ‘快’(快來幫忙。)의 의미는 ‘움직이는 동작이나 일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빠름’을 의미한다. 중국어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고 형태표지가 거의 없으므로 단어와 단어의 의미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어가 갖는 의미들이 결합하고 문맥을 형성하여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 문장성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의미로 쓰이므로 부사어로 쓰인 ‘快’든 보어로 쓰인 ‘快’든 다 형용사로 귀속함이 옳다고 여겨진다.

2) ‘快要’의 의미와 품사 및 어법단위

『現代漢語詞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¹¹⁾

【부사】表示在很短的時間內就要出現某種情況。[매우 짧은 시간 내에 곧 어떤 상황이 나타나
는 것을 나타냄]

① 鉛筆快要用完了，再買幾支去。

(연필이 빨리[→곧] 다 쓰일[→닿아질] 것 같으니 다시 몇 자루를 사러 간다.)

② 國慶節快要到了。

(국경일이 빨리[→곧] 이를 것이다.)

③ 她長得快要跟媽媽一樣高了。

(그녀는 빨리[→곧] 엄마와 같이 클[자랄] 것이다.)

사전에 명시된 ‘快要’는 ‘동작의 미래 발생’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하나이다. 이외에 ‘將來’와 ‘就要’ 등도 ‘快要’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¹²⁾ 『現代漢語詞典』(第7版, 2017)에는 ‘就要’와 ‘將要’는 찾아볼 수 없다. 『現代漢語八百詞』에도 ‘快要’뿐이다. 수량구 앞에는 ‘快’만 쓰이고 ‘快要’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¹³⁾ 劉月華 등의 『實用現代漢語語法』에는 快(快要), 就(就要), 將(將要)을 시간부사로 분류하고 ‘동작행위가 앞으로 곧 발생할 것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快’, ‘就’, ‘將’은 자주 ‘要’와 연용되어 ‘快要’, ‘就要’, ‘將要’를 구성한다 하였다. 그리고 ‘將’과 ‘將要’는 문어체에 주로 쓰이고 구어체에는 ‘快’, ‘快要’, ‘就’, ‘就要’가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快要’와 ‘就要’는 ‘快’와 ‘就’보다 나타내는 시간이 더욱 촉박하다 하고 시간의 촉박함을 나타낼 경우에는 주로 문미에 ‘了’와 함께 쓰인다 하였다.¹⁴⁾ ‘將要’는 문어체이며 실제 北京大(CCL) 코퍼스 자료의 현대중국어에서는 그 쓰임을 찾아볼 수 없다. 문맥상 ‘동작이 곧, 머지않아 발생할 것임’을 나타내는 어휘는 ‘將要’, ‘快要’, ‘就要’라고 하는데 실은 ‘快’, ‘將’, ‘就’만으로도 ‘곧~하다’는 문의를 형성한다. 이들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① 【快, 就, 將】

① 快到站了，準備下車吧。

(빠르게[곧] 역에 도착할 것임이다. 내릴 준비하십시오.)

② 他們快回國了，飛機票都買好了。

(그들은 곧 귀국할 것이다. 비행기표도 다 샀다.)

③ 對不起，請等一會兒，我就來。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④ 半個世紀后，中國將成爲一個發達國家。

(반세기 이후, 중국은 장차 발달한 국가가 될 것이다.)

② 【快要, 就要, 將要】

11) 『現代漢語詞典』, 앞의 책, p.758.

12) 劉月華·潘文娛·故韓,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2001.

13)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香港分館, 香港1983, p.305. 同副詞‘快’,但c)的數量短語前通常只用‘快’,不用‘快要’. c) 快+數量: 我們相處快一年了. 快九點了, 汽車還不來. 老大爺, 您快七十了.

14) 『實用現代漢語語法』, 앞의 책, 2001.

- ⑤ 春天快要到了。
(봄이 곧 올 것이다.)
- ⑥ 你再說下去他都快要哭了。
(내가 더 말을 하면 그는 곧 울 것이다.)
- ⑦ 四年的大學生活就要結束了。
(4년의 대학 생활이 곧 끝나려고 한다.)
- ⑧ 你借的那本書下星期三就要到期了。
(내가 빌린 그 책은 다음 주 수요일에 돌려줘야 한다.)
- ⑨ 飞机将要起飞的时候, 突然刮起了大风。
(비행기가 이륙하려는 즈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 ⑩ 將要走的时候, 下起大雨来没能走。
(막 출발하려고 할 때 큰 비가 내려 갈 수가 없었다.)
- ⑪ 天气異常悶熱, 大家都豫感到將要下一場大雨。
(날씨가 유난히 무더워서 모두들 한바탕 큰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감했다.)

‘快’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보는 관점은 어디에서 왔는가? “暑假快到了。”는 사실, 즉 “여름 방학이 빠르게 이르렀다.”로 ‘시간적으로 여름방학이 가까이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문의는 “여름 방학이 곧 다가온다.”이다. ‘快’의 의미는 ‘동작이나 일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이르다(빠르다)’이다. 때문에 시간명사의 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媽媽七點快回來了。) 주어진 시간보다는 빠름을 의미하므로 시간명사가 쓰인다면 ‘快’의 뒤에 쓰여야 이치적으로 옳다. 곧 ‘快七點了, 媽媽快回來了.’(7시보다 빠르다. 엄마는 빨리 돌아오신다. → 7시가 다가오면 엄마는 곧 돌아오신다. → 빨리[→곧] 7시가 되면 엄마는 빨리 돌아오실 것이다.) 언어 환경이 ‘~을 하려고 하다’의 의미를 필요로 하므로 ‘快’만 쓰였을 때보다 문의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快’ 뒤에 ‘要’를 첨가하여 수식구의 ‘快要’를 결합하여 ‘빠르게[곧]~하려고 하다’의 문맥을 형성한다. ‘快要’는 ‘快[빠르다]와 ‘要[원하다] 두 단어가 수식 관계로 결합된 동사구로도 볼 수 있으나 두 단어의 결합보다는 두 단어가 갖는 언어 환경으로 인해 연이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快’나 ‘연접된 快要’는 시간명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弟弟明天快要回來了。”(남동생이 내일이면 빨리[곧] 돌아온다.)와 같이 ‘快要’ 앞에 시간명사 ‘明天’이 위치하면 비문이 된다. 왜냐하면 ‘明天’(내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뒤에는 ‘快’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¹⁵⁾

- ⑫ 天已經(都)快要黑了。
(날이 빨리[곧] 어두워지려고 한다.)
- ⑬ 太陽已經快要下山了。
(태양이 이미 빨리[곧] 지려고 한다.)
- ⑭ 他就快要到公司幫爹爹做生意。(当代文学 香港作家 岑凯伦 蜜糖儿.txt)
(그는 곧바로 빨리[곧] 회사에 도착해 아빠의 사업을 도울 것이다.)

15) 『實用現代漢語語法』, 앞의 책, 2001.

⑮ 因为，你就快要和我的女儿结婚了。(当代文学 香港作家 岑凯伦 合家欢.txt)

(왜냐하면 너는 곧바로 빨리[곧] 내 딸과 결혼을 할 것이다.)

⑯ 我的梦想马上就要實現了，我很快就要成为一个名副其实的演員了。

(当代史 中国北漂艺人生存实录.TXT)

(내 꿈은 빨리[곧] 실현되려고 한다. 나는 매우 빨리 곧바로 명실상부한 배우가 될 것이다.)

⑰ “曼青快要结婚了，有請柬給你么？”(现代文学 矛盾 蚀.txt)

(만청이 빨리[곧] 곧바로 결혼하는데 당신에게 준 청첩장이 있느냐?)

⑱ 不错，然而这位老太爷快要——斷氣了。(现代文学 矛盾 子夜.txt)

(좋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 곧 숨이 끊어질 것이다.)

위 예문에 의하면, ‘시간적으로 짧음’을 나타낼 경우에는 ‘快’나 ‘快要’ 앞에 시간부사 ‘已經’과 ‘都’보다 ‘就’가 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快要’는 ‘就’의 수식을 받기도 한다. ‘就要’ 또한 ‘快’나 ‘很快’의 수식을 받는다. ‘就’는 ‘곧(바로) [~하다](~이다)’이다. ‘快’도 ‘가까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들의 쓰임은 어떻게 다른가? “等一會兒，我就來。”(조그만 기다려 내가 곧바로 올게[갈게].)의 ‘就’는 정황상 ‘어떤 동작이 곧바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변화를 나타내는 조사 ‘了’와 共起하지 않는 이유도 ‘就’가 갖는 어법 의미 때문이다. ‘我借完書，就走。’(나는 책을 다 빌리고 곧바로 간다[갈 것이다.])의 경우와 같이 책을 빌리는 동작이 다 끝난 뒤에 곧바로 떠나는 동작이 연이어 나올 때 ‘就’를 사용한다. 때문에 ‘就’는 시간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不到五分鐘，我就到。”(5분도 안 되어서 나는 곧바로 도착한다.[도착할 것이다]) ‘就要’는 ‘就’보다 더 가까운 시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留學生活就要結束了。”(유학 생활이 곧 끝난다.[끝나려고 한다.]) 시간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天馬上就要黑了。”(날이 곧 어두워질 것이다.) “弟弟明天就要回來了。”(남동생이 내일이면 곧 돌아온다.)¹⁶⁾

‘快要，就要，將要’는 수식관계로 결합된 句단위이다. 이를 한 덩어리의 동사구로 본다면 뒤의 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구조가 된다. ‘快’·‘就’·‘將’과 ‘要’를 분리하여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도 있다.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 의한 단어의 기능상 ‘快要’는 아직은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두 개의 단어가 연이어 사용된 예로 봄이 옳다고 여겨진다. 학습의 편리를 위해 ‘快~了’나 ‘快要~了’가 마치 고정된 것처럼 교육되고 있으나, 실은 ‘快’ 한 단어만으로도 ‘곧~하려고 하다’를 형성할 수 있다.

‘將’은 문어체, ‘快’와 ‘就’는 구어체에 주로 쓰인다. ‘快要’가 수식관계로 결합한 동사구이듯 ‘將要’와 ‘就要’ 또한 수식관계로 결합된 동사구이다. 언어 환경상 ‘快，就，將’이 ‘要’와 결합하려는 경향이 높다. ‘要’가 쓰인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무생물도 올 수 있다.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다. ‘快要，就要，將要’ 등은 아직은 두 단어의 연접 단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16) 郝思瑾, 「時間副詞“快要”與“就要”的語義特徵及主觀化假設」, 『徐州工程學院學報』, 제26권 5기.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現代漢語詞典』의 해석을 중심으로 ‘快’와 ‘快要’의 의미, 품사, 어법단위 인식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중국어의 실제 언어 환경에서 ‘快’의 사전적인 기본의미는 ‘速度高; 走路、做事等費的時間短[속도가 높다, 길을 걷거나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짧다.]’이고, 품사는 형용사에 귀속된다. 술어로 쓰인 ‘快’(他進步很快。)와 부사어로 쓰인 ‘快’(快來幫忙。)는 모두 ‘움직이는 동작이나 일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빠름’을 의미한다. 중국어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고 형태표지가 거의 없으므로 단어와 단어의 의미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어가 갖는 의미들에 의해 문맥이 형성되고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 문장성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쓰이고 있으므로 술어로 쓰이든 부사어로 쓰이든 혹은 보어로 쓰인 ‘快’는 모두 형용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실제 언어 환경에서 ‘快’는 ‘움직이는 동작이나 일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빠르다’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관통되며, 주로 술어, 부사어 및 보어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형용사와 부사라는 두 단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음을 뜻한다.

‘快’는 명사로서 ‘성씨’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대에는 ‘捕快’와 ‘馬快’와 같이 ‘옛날에 체포하는 부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대중국어의 단음절어 ‘快[기쁘다]’의 형태가 현대중국어에서는 비자립형태소로 쓰임도 확인하였다.

『現代漢語詞典』에 부사로 등재된 ‘快要’는 실제 언어 환경에서는 ‘속도가 빠르거나 길을 걷거나 시간이 짧음’을 의미하는 형용사 ‘快[빠르다]’와 ‘~하기를 원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要’가 연결되어 ‘빨리(곧) ~하려고 하다’의 문맥 의미를 형성한다. ‘快’는 동사나 형용사 술어 이외에도 수량사 술어 앞에도 쓰여 문맥상 ‘빨리(곧)~하려고 하다’라는 문의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현대중국어의 실제 언어 환경에서는 수량사 앞에는 ‘快’, 동사술어나 형용사술어 앞에는 ‘快要’가 주로 쓰임도 확인하였다. ‘快要’는 ‘快[빠르다]’와 ‘要[~하기를 원하다]’ 두 단어의 연결(句에 상응하는 어법단위)이지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없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 『說文解字』·『說文解字注』 등의 각종 사전류.
 北京大學의 코퍼스자료(CCL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宗福邦·陳世鐸·蕭海波 主編, 『故訓匯纂』, 商務印書館, 2003.
 中國社會科學院 語言研究所 詞典編輯室 編, 『現代漢語詞典』, 北京:商務印書館, 2017, 제7판.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中韓辭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2.
 丁聲樹,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1999년 8쇄(1961년 1쇄).
 郭 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02.

- 劉月華·潘文娛·故 韓,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1983.
- 劉月華·潘文娛·故 韓,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2001.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6.
- 張誼生, 『現代漢語副詞研究』, 學林出版社, 2000.
- 張誼生, 『現代漢語副詞探索』, 學林出版社, 2004.
- 劉月華·潘文娛·故 韓, 김현철·박정구·오문의·최규발 공역,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송산출판사, 2005.
- 안기섭, 『新體系漢文法大要 先秦·兩漢시기』, 보고사, 2012.
- 이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 1982.
- 조성식,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1990.
- 鄧苗雯, 「現代漢語“快(要)……了”和“就(要)……了”格式對比研究」, 『語言文化與翻譯』, 北京:北京大學, 2011.
- 郝思瑾, 「時間副詞“快要”與“就要”的語義特徵及主觀化假設」, 『徐州工程學院學報』, 제26권 5기.
- 안기섭, 「現代漢語의 助詞 ‘了’에 대한 기술 체계 수정 試論 — 상(aspect) 표지의 유형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과학, 제54집, 2013.
- 안기섭·정성임, 「현대한어 “능원동사(能願動詞)”의 성격에 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한국중국어언어학회, 제22집, 2006.
- 안기섭·정성임·허봉격, 「‘還’·‘還是’의 의미·품사·어법단위에 대하여 — 詞典의 해석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과학회, 제64집, 2016.
- 안기섭·정성임·허봉격, 「‘就’·‘就是’의 詞典 해석상의 문제에 대하여 — 의미항·품사·어법단위를 중심으로」, 『중국어학연구』, 중국학연구, 제64집, 2017.
- 정성임, 「현대중국어 ‘跟’·‘跟着’의 詞典 해석상의 문제 고찰 — 의미항·품사·어법단위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과학회, 제68집, 201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국문	'快'[kuài], '快要[kuàiyào], 現代漢語詞典, 의미항목, 품사, 어법단위		
	영문	Modern Chinese, 『現代漢語詞典』, '快'[kuài] and '快要[kuàiyào], Semantic Clause, Part of Speech, Grammar Unit		
<div>An Approach to the Meaning, Part of Speech and Grammatical Unit of '快' · '快要' in Modern Chinese</div> <div>Ahn, Key-Seob / Jung, Sung-Yim</div> <p>As a result of discussing about the meaning, part of speech, and grammar unit of '快' and '快要' according to the translation of 『現代漢語詞典』, we realized that '快' is universally used as an adjective that means 'the movement or flow of episode is fast in time' in any context it is used in. It is mainly used as a predicate, a complement, or a sentence adverb. It also means 'family name' as a noun. In ancient times, it also meant 'a job that professionally supervises the work of arresting in the past' as a noun like '捕快' and '馬快.' We also realized that the form of a monosyllable of Ancient Chinese, '快[기쁘다]', is used as a dependent morpheme in Modern Chinese.</p> <p>'快要', which is recorded as an adverb on 『現代漢語詞典』, forms a contextual definition 'will do ~ soon' by a combination of an adjective '快[fast]' which means 'the speed is high or it takes a short time to walk or work' and a verb '要' which means 'to want to do ~' in actual language environment. We also checked that '快' has a contextual meaning of 'will do ~ soon' not only when it is used in front of a verb or an adjective predicate, but also in front of a quantifier predicate. We also found out that '快' is used mainly in front of a quantifier, whereas '快要' is used mainly in front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ctual language environment. '快要' is considered to be used in a combination of the words '快[fast]' and '要[to want to do ~].'</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안기섭 / 安寄燮 / Ahn, Key-Seob		정성임 / 鄭星任 / Jung, Sung-Yim
	소 속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문화학과
	Em@il	angiseb@hanmail.net		tokee18@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11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